

#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http://www.kumsung.org)

##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 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 5:13-14)

##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 [2020년 11월 8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시 150:1-6, 창 21:1-6

제목 : 감사의 신앙 · 감사의 열매(2):

생명 있음에, 생명을 주심에

말씀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20)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올** 해 7월에 출간된 책을 소개합니다. 제목이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책에는 실제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또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들이 깨달은 내용들을 이웃사람들에게 특히 가족에게 전하는 내용을 저자가 인용하면서 독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삶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책입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가장 소중한 삶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며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 책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9년 1월 뉴욕(라과디아 공항)을 떠나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럿(더글라스 국제 공항)을 향하던 비행기가 이륙 3분 만에 기러기 떼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 충돌로 엔진에 불이 붙었고 “끼익끼익” 소리를 내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조종사는 허드슨 강에 비상 착륙을 감행합니다.

155명을 태운 비행기는 급히 하강에서 차가운 강물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연기가 가득한 기내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자 여기저기에서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대형 참사가 일어났을 뻔 했지만 모든 승객들은 생환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강의 기적>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나 승객들은 그 끔찍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눈물 흘리고 소리친 후에야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안에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릭 엘리어스(Rick Elias)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에 비행기 엔진이 꺼지고 굉음을 내는 비행기도 무서웠지만 침묵하는 비행기가 더욱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움직이는 엔진소리가 들려야 하는 데 그게 들리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앞에 있던 승무원의 눈빛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일이 전혀 아닙니다. 곧 관촬을 것이라고 승객들을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에도 공포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날 엘리어스는 죽음의 공포에서 세 가지를 배웠다고 했습니다. 첫 째로는 의미 있는 일을 미루지 말자. 연락해서 만날 분 못 만난 것 집담장을 고치는 작은 일들을 미루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일들을 왜 미루느냐? 고 반문하면서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할 일을 절대로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만의 관념인 자아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어스는 자아가 강해서 하

참은 문제로 소중한 사람들과 갈등을 해왔다고 반성했습니다. 그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고 비즈니스 현장에서 갈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내와도 관계가 좋아져서 2년 동안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여자들이 자아가 강해서 좀 다툼이 많은 편입니다.

세 번째 깨달음입니다. 비행기 실내로 강물이 들어올 때 엘리어스는 자신에게 어떤 소망이 가장 간절한지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무서운 것 보다는 슬펐고 그 슬픔은 생각을 한 곳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간절히 했을 까요? "나는 단 한 가지만 원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크는 걸 볼 수 있다면 좋겠다고 소원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밀려온 가장 큰 슬픔은 자녀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아이들을 만날 수 없고 돌볼 수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그 것이 가장 슬펐다고 했습니다. 엘리어스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소리치며 울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로써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슬픔입니다. 기적적으로 엘리어스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삶이 더 현명 해졌고 풍성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는 질병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자들이 자식에게 못 다한 사랑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긴 내용도 있습니다. 익명의 젊은 아빠는 투병생활을 하면서 죽기 전에 3살 난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빠가 아픈 걸 용서해 주길 바란다. 또 네가 필요 할 때 같이 못 있는 것도 용서해다오. 다만 네가 알아졌으면 해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해. 울음이 터져서 이 편지를 쓰는 게 정말 힘 드네..." 그런데 이 편지를 쓰는데 3살 난 그 아들은 아빠 옆에서 뛰어 놀고 있습니다. 그 장면에 참 가슴이 에려웁니다.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는데 이 땅위에 부모들은 특히 아버지들은 인간이기에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에만 한계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사고로 질병으로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감사를 주는 것은 영원히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항상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시편 117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17편은 시

편 118편의 시작부분입니다.

시11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식탁에 앉아서 과거 출애굽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아버지가 먼저 인도하는 고백을 하면 자녀들이 응답하는 내용입니다. 자녀들이 응답하는 말은 동일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 118:1-4절만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낭독하면 여러분들은 사선(/)뒷부분을 낭독하시면 됩니다.

- 1.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 2.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 3.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 4.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가정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계속 같이 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 지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사한 가정이 있다면 "우리에게 새 장막을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녀가 출생했습니까? "우리에게 자녀(이름을 부르면서)를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결혼해서 새 식구가 들어왔습니까? "우리 가정에 새 식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술 후 퇴원했으면 "수술한 후에 회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은 무엇일까요? 117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이 구절은 오래 전에 찬양 곡으로 만들어서 아주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고 크시도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고 크시도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본인 이름

을 넣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렇게 부르시겠습니까. "00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고 크시도다. 성오에게 향하신 여호와와 진실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시고 크시도다."

이곳에서 <인자하심>은 <혜세드>입니다. <공흠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공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신실하게 변하지 않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아버지가 저나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토마스키솜(Thomas O. Chisholm, 1866-1960)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1866년 켄터키주 프랭클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몸이 연약했으나 뛰어난 명철로 16살에 모교 교사가 되었고, 후에 애스버리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27살에 부흥 집회에서 예수를 영접하였고 37살에 1903년에 감리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일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이유로 은퇴 후 감리교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평생 1,200여 편의 찬송 시를 썼으며 800편이 출판되었다.

이 목사가 57살이었을 때 어느 날 예레미야애가 3장을 묵상하던 중에 깊은 슬픔과 고난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의 고백이 자신의 고백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특히 애가3:22-23의 "여호와와 인자와 공흠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특히 23절의 끝 부분에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라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아 시를 썼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건강악화로 인한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지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이때의 마음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쓴 영어 가사를 1절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O God my Fa-ther  
(당신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  
There is no shadow of turning with thee  
(당신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며)  
Thou chang-est not, Thy com-pas-sions,  
They fail not As Thou hast been Thou for-ev-er wilt be.  
(당신은 변치 않으시고 당신의 자비로움은 실

패치 않으시며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후렴 구절입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십니다.)

Morn-ing by morn-ing new mer-cies I see;

(아침마다 새로운 자비를 내가 봅니다.)

All I have need-ed Thy hand hath pro-vid-ed;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손으로 공급하십니다)

Great is Thy faith-ful-ness, Lord, un-to me! "

(주님, 제게 베푸신 당신의 신실하심이 참으로 크십니다)

그 시를 보고 윌리엄 런얀(William Runyan) 목사가 곡을 부쳤습니다. 그 노래가 이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 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2절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 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 찬양입니까? 그렇다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가요? 3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변함없이 늘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율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꾸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을 더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입니다. 그 것은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입니다. 헌신이 적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며 사랑하는 그의 제가 가슴에 앉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2.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롬 8:28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의 결과는 늘 선입니다. 이것을 믿기에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갑작스레 고통이나 아픔이나 꼬이는 문제가 찾아오면 늘 말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이 무슨 신령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가 봅니다. 그 것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픔을 주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예비하신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것을 체험했기에 여호와의 믿고 따라가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자기 뒤를 따라온다." 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코로나 19도 잘 대처하면 선한 간증들이 많이 나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3.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다는 약속을 430년 만에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25년 만에 지키셨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2000년 만에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이 땅에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 55: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12.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13.жат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짚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바벨론 포로생활에서 돌아가게 될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대로 70년이 차차 해방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방의 기쁨을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박수를 치는 것 같은 기쁨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택하신 백성들과의 언

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게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눈동자 같이 돌봐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감사 찬송이 나옵니다.

또한 모든 일을 협력해서 선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더 감사가 넘치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우리들을 대하여 주십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싫어서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아버지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사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우리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정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시 한편 감상하겠습니다.

을 초에 출판한 나태주 시인의 시집 <혼자서도 별인 너에게>에서 인용합니다.

<인생> 나태주  
화창한 날씨만 믿고  
가벼운 옷차림과 신발로 길을 나섰지요.  
향기로운 바람 지저귀는 새소리 따라  
오솔길을 걸었지요.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길  
막판에 그만 소낙비를 만났지 뭘니까  
하지만 나는 소낙비를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날씨 탓을 하며 날씨한테 속았노라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좋았노라 그마저도 아름다운 하루였노라  
말하고 싶어요.  
소낙비 함께 옷과 신발에 묻어 온  
숲 속의 바람과 새소리

그것도 소중한 나의 하루  
나의 인생이었으니까요.

혹시 불평하면서 무엇을 탓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요? 남편 탓에 자식 탓에 아내 탓에 환경 탓에 그렇게 살지는 않고 있는 지요? 신실하신 아버지로 인하여 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니라."